

##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손경애\*

### 〈요 약〉

본 연구는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경애 외(2009)의 설문자료에서 대학생 1,20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단계적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시민 의식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은 대체로 민주주의 제도와 참여·실천에, 학교환경은 대체로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태도( $\beta=.228$ )와 교수( $\beta=.162$ )가 민주시민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모와 교수가 두 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어느 변인도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치인과 기업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사회·정치 제도의 민주적 실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생용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대학에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차원에서는 학사운영을 민주적으로 실시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민주시민, 민주시민 의식, 대학생, 민주시민 의식 영향력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건국 이후 6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자유, 민주, 정의를 기치로 4·19 혁명, 10월 유신, 6월 항쟁 등의 다양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90년대 이후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000달러로 세계 10대 경제부국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국내 시장 개방, 다문화, 복수 국적 허용 등의 문제가 화두로 등장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공화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주화의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심익섭·김민정·김성호·송태수·신기현·신두철·심상용·윤기석·이승중·이준호·정창화·추병완·허영식, 2004: 26). 즉,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민주화를 위하여 지나치게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정치지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전되어 온 민주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정치적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다(배한동, 2001a). 즉, 우리나라 대학생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냉소주의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고, 지역주의 정치성향을 탈피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 의지는 높지만 타협과 설득 의식이 부족하고, 준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시민 의식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 능력으로서도 중요한 요소이다(김태준, 2004). 특히 민주시민성이 완숙 단계에 이르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본이다. 그러나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생의 시민의식 수준이 초·중등 학

생보다 낮고(손경애·이혁규·옥일남·박윤경, 2009),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05).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 의식(문용린, 2002; 배한동, 2001a; 한국대학신문, 2005)과 세계시민 의식(강운선·이명강, 2009; 김정화·박선혜·조상미, 2010)에 관련된 연구는 몇 편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마저도 민주시민 의식을 정치의식에 한정함으로써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는 대체로 특정 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정도로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과 관련되는 요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을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고, 이 변인들이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그리고 이들 3개 척도지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중단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민주시민 의식과 관련된 요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역학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대학이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손경애 외(2009; 2010)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과 민주시민 의식, 민주시민 의식의 구성요소,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1. 민주시민과 민주시민 의식

‘민주시민’의 용어를 정의하기에 앞서 ‘시민’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시민’이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같이 공업이 발달하던 시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성장한 상공업자인 부르주아지(Bourgeoisie)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구지배계층에 대항하여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이란 말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는 다르게 국가의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민주주의를 가꾸고 실현해 가는 주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로 본다.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여 지칭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을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 차원을 넘어 그것을 행동화, 실천화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음은 ‘민주시민 의식’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의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의식이란 태도나 신념체계와 같은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의식은 어떤 사상(事象)에 대한 사고, 인식, 태도, 신념, 가치, 평가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어 ‘시민의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의식은 정치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의식이다. 그리고 시민의식은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 능력으로(지은림, 2007: 151-172) 시민생활의 기본 전제이다(배한동, 2006: 13).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정치문화나 민주정치의 발전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공보처, 1997: 26-27). 이러한 민주시민 의식은 전 생애의 발달 단계를 거쳐 형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Erickson, 1963; Piaget, 1928). Schuller(2002)는 가족 및 친구 관계, 시민의식, 사회적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기술, 지식, 자격 등과 같은 인적 자본과 상호 통합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생애능력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민주시민 의식을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 차원을 넘어 그것을 행동화, 실천화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녀야 할 사고, 인식, 태도, 신념, 가치, 평가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 2. 민주시민 의식의 구성요소

민주시민 의식의 구성요소는 그동안 학자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박동서·김광웅(1989)은 민주시민 의식의 구성요소로 지식, 태도, 행동 등 3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지식 영역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측면으로 이념적 원리와 절차적 원리를 포함한다. 이념적 원리는 인간존엄, 자유, 평등, 개인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등이며, 절차적 원리는 토론절차의 인정, 관용의 태도, 비판과 타협의 수용,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태도 영역은 약속의 준수, 공존의 윤리 등의 민주적 생활태도와 서열의식, 개인적 충성의 강조, 가족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권위주의적 생활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영역은 정치 참여의 경험과 투표과정 등으로 구분된다.

OECD 연구(Fratczak-Rudnicka & Torney-Purta, 2002)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녀야 할 시민의식의 구성요소로 지식, 기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개념 갖기, 태도, 행위의 의도 등을 제시하였다. 공보처(1997)의 시민의식 국제비교 조사 항목에는 공동체 의식, 준법의식, 대화/타협의식, 사회봉사 의식, 권리의식,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식, 외국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2003)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의 범주를 국가정체성, 신뢰 및 가치 공유, 권리 및 책임 의식, 정치 및 사회 참여 의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태준(2004)의 ‘한국사회 시민의식 실태 조사’ 연구는 시민의식의 주요 요소로 비판 의식과 다양성 존중 의식을 제시하였다. 배한동(2001b)은 대학생의 정치의식 조사에서 민주주의 실현 의지, 권위주의 의식의 탈피 정도, 질서실태와 법질서의 효능감, 타협과 설득 의식,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의견, 시위문화에 대한 평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평가, 한총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지은립(2007)의 대학생용 지구시민 의식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시민의식 영역과 민주주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의식 영역은 준법정신, 사회정의, 양심적 삶, 사회기여 책임, 투표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을 포함하며, 민주주의 영역은 환경보호 참여, 이웃에 대한 관심, 사회평등 실현 등을 포함한다. IEA(Torney-Purta et al., 2001)의 시민의식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 국가정체성, 사회통합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조영하와 김태준(2010)은 IEA의 조사 연구에 참여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영역에

대한 가치신념과 태도를 묻는 7개의 개념범주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은 민주시민 의식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주시민 의식의 구성요소는 지식, 태도, 행동 등 3개 영역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는 이들 영역을 토대로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등 3개 요소를 민주시민 의식의 하위요인으로 상정하였다.

### 3.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

개인의 의식은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가 속한 사회의 사고, 습관, 감정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김중서·이영덕·정원식, 2009: 232).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도 청년 후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고, 여러 중개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학자들(김중서·이영덕·정원식, 2009; 박동서·김광웅, 1989; 정원식·이상노·이성진, 1991; 차경수, 1984; Hoy & Miskel, 2008)은 인간의 의식 형성에 대한 중개체로 개인특성,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특성,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을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으로 상정한다.

민주시민 의식과 관련하여 먼저 개인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들(박동서·김광웅, 1989; 배한동, 2001a, 2001b, 2006; 손경애 외, 2009)은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이 성별 및 학년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은 남자보다는 여자 집단에서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배한동(2001b: 227, 2006)은 지역주의 성향이 우리나라 대학생층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갈등의 정치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편, 대학생의 민주시민 수준을 학업성적별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학자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수준이 저조한 이유를 ‘입시위주’ 또는 ‘성적위주’ 교육에서 찾고 있다(손경애 외, 2009). 그렇다면 취업 시장에서 강력한 지표로 작용하는 학업성적도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개인특성 변인은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개인특성 변인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개인특성 변인은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개인특성 변인은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가정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가치관과 언어, 생활습관 등을 학습하는 초기의 사회화 기관으로 아동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차경수, 1984: 79-8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자녀의 성격 또는 행동 발달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의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된다(차경수, 1984: 79-80). 그리고 가정환경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부모의 정치에 대한 흥미와 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치효능감이 높아진다(김광웅·방은령, 2001).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의존적, 미숙, 고립, 사회적 적응성과 사려성 부족, 책임감과 판단력 결여 등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Symonds, 1969: 46-49)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다(정원식, 1974). 한편,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형제·자매수별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도시화 현상과 가족규모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가정에서는 한 자녀 가정이 보편적이다. 이들 가정은 자녀에게 다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 성향을 조장시킬 수 있다(김중서·이영덕·정원식, 2009: 76-78). 한편, 민주시민 의식은 가까운 사람의 모방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정원식·이상노·이성진, 1991: 94-96). 가정에서 형제·자매는 출생의 근원을 같이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민주시민 의식 형성은 이들의 행동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가정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가정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가정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가정환경 변인은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교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의 주요 기능으로 사회화 기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학교는 학교교육 이외의 가정이나 다른 중개체로부터 정치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정치적 지식의 습득이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정치사회화 기능을 한다. 정치적 사회화의 결핍은 그 사회에 정치적 불안정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김광웅·방은령, 2001: 36).

대학교육에서 3대 요소인 교수, 학생, 교과서(김광웅·방은령, 2001: 36; 차경수, 1985: 70; Havighurst & Neagarten, 1968: 463-464)와 대학교육의 총책임자인 총장은 대학생의 사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수가 어떠한 내용의 교과서를 선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느냐의 문제와 학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총장의 태도 등은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료 학생도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광웅·방은령, 2001: 37). 정치 사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 후기에 정치변화의 해석과 이에 대한 변천 그리고 정치적 역할에 대한 참여 준비가 동료 집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Langton, 1969). 한편, 대학생의 사회화는 대학 내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도 그 형성이 가능하다. 대학생의 스포츠동아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성(강효민, 2003; 황용준·김갑선, 2005) 및 교우관계(김영수, 2008)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학생회는 정치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구로, 학생회의 독자적인 참여와 봉사적 성격은 민주시민 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 교육도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 역시 교육의 한 형태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학교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학교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학교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학교환경 변인은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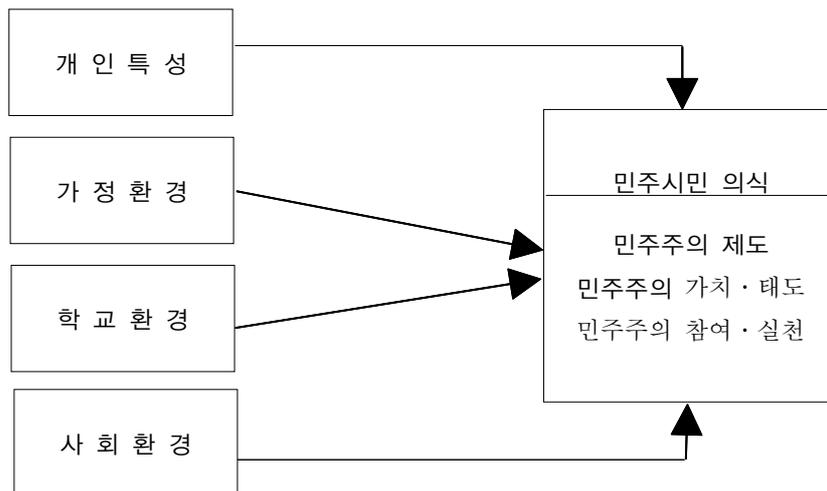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의 행동은 조직 내적 환경뿐만 아니라 조직 외적 환경, 즉 사회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Hoy & Miskel, 2008: 296-300). 민주주의가 민주사회를 전제하듯이 민주주의 의식은 민주주의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정치사회 환경은 의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언론 등을 포함한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특히 언론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관되고 표준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

회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중요한 구실을 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김광웅·방은령, 2001: 38-39). 대학생들은 이들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민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1] 사회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2] 사회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3] 사회환경 변인은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4] 사회환경 변인은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면,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은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의 변인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민주시민 의식은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등의 하위변인들을 포함한다.



<그림 1> 대학생 민주시민 의식 연구의 틀

### Ⅲ.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손경애 외(2009)가 전국 5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1개의 초·중·고·대학교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에서 대학생 1,20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시 교육통계연보(교육과학기술부, 2009)를 근거로 성별, 지역, 학교설립 형태, 전공계열에 따른 학생 수를 고려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1,200부 중 1,083부가 회수되어 90.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연구는 손경애 외(2009)의 연구와는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손경애 외(2009)의 연구는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본 연구는 보다 심층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 2. 변수 측정

##### 2.1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손경애 외(2009)의 연구에서 활용된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등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척도에 포함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이 선행연구(김만중, 2006; 김현미, 2005; 박동서, 김광웅, 1989; 배한동, 2001a, 2001b; 한국교육개발원, 1993)를 참고로 설문문항을 작성한 후 대학에서 민주시민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3인과 최근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연구자 2인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일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손경애 외(2009)에 참여하였던 4명의 연구자들이 전문가와 학생들의 피드백과 사전검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3개의 척도 중 민주주의 제도 영역은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 법관은 정치적인 압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신문, TV 등)은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민주주의 가치·태도 영역은 인간의 민주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 법질서, 다수결의 원칙, 타협 등의 가치 및 태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참여·실천 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와 실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위에 참여할 것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정, 학교, 사회 환경 주체들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였다. 가정환경 변인은 부모의 태도, 학교 변인으로는 총장, 교수, 학생, 교육과정, 동아리, 학생회, 민주시민 교육 등을 포함한다. 사회환경 변인은 국가, 시민, 공무원, 정치인, 언론, 기업, 법원, 검찰 등을 포함한다. 이들 변인에 대한 민주적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_\_\_\_\_는 민주적으로 성숙하다.’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척도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2.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가 변인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에 대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들은 모두 Chronbach’s 값이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수용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측정척도의 신뢰도

변 수	문 항 수	평 균	표준편차	신뢰도
민주주의 제도	11	2.75	.516	.774
민주주의 가치·태도	12	3.83	.407	.646
민주주의 참여·실천	8	3.15	.646	.840

다음, 민주시민 의식 구성요인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4개 문항, 민주주의 가치·태도에서는 5개 문항, 민주주의 참여·실천에서는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21개 문항들이 모두 3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변인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에 대한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증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들의 측정에 사용된 모든 문항들이 예외 없이 해당 요인에 높게 부하되어 측정에 사용된 모든 척도들이 적절한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가지고 있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과 단계적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에 대한 중개체로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상정된 성별, 학년, 지역, 성적 등 네 개의 개인특성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단계적회귀분석을 위하여 성별은 남자 '1,' 여자 '0,' 지역은 수도권 '1,' 지방 '0,' 학년과 학업성적은 코디 변경 후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학년의 경우 1학년 '1,' 2학년 '2,' 3학년 '3,' 4학년 '4'의 값을, 학업성적은 하 '1,' 중 '2,' 상 '3'으로 코디 변경 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가정환경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 형제·자매수, 생활정도는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부모의 학력은 중졸 이하 '9,' 고졸 '12,' 전문대졸 '14,' 대졸 '16,' 대학원졸 '18,' 생활정도는 하 '1,' 중 '2,' 상 '3,' 형제·자매수는 1인 '0,' 2인 '1,' 3인 '2,' 4인 이상은 '3'의 값을 갖도록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전환시킨 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학교환경 변인에서 민주시민 교육, 학생회, 동아리의 경우 예 '1,' 아니오 '0'으로 전환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과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을 포함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지면관계상 사회환경에 대한 자료를 제외한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에 대한 자료만 제시하고 사회환경에 대한 자료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대학생의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특성과 민주시민 의식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 성 별										
2. 지 역	.281**									
3. 학 년	.034	.013								
4. 성 적	.122**	-.005	.086**							
5. 부 학 력	.165**	.133**	.062	.095**						
6. 모 학 력	.249**	.093**	.058	.123**	.662**					
7. 생 활 정 도	.373**	-.030	.152**	.339**	.131**	.183**				
8. 형 제 자 매 수	.263**	.180**	.051	.054	-.077*	-.080**	.032			
9. 민 주 제 도	.110**	-.005	.011	-.040	.048	.044	.041	.048		
10. 가 치 태 도	-.019	.003	-.063	.059	-.070*	-.072*	.034	-.025	.194**	
11. 참 여 실 천	.009	-.018	.087**	.146**	-.038	-.022	.080**	.053	.095*	.233**

주) \* p<.05; \*\* p<.01 (양측검증)

<표 2>에서 민주시민 하위변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민주주의 제도는 유일하게 성별( $r=.110$ ) 특성과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태도는 개인특성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는 반면, 아버지( $r=-.070$ )와 어머니( $r=-.072$ )의 학력과는 부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참여·실천은 개인특성 변인 중에서는 학년( $r=.087$ )과 성적( $r=.146$ )과 정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는 생활정도( $r=.080$ )와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개인특성 변인들 중에서는 지역,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형제·자매수의 경우 민주시민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민주시민 의식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민주주의 제도는 가치·태도( $r=.194$ )와 참여·실천( $r=.095$ )과 정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치·태도는 참여·실천( $r=.233$ )과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

## 2.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가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과 이들 척수지수의 합으로 구성된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해 단계적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표 6>에서 [모형 1]은 해당 종속변인에 네 개의 통제변인들을 회귀한 결과이고, [모형 2]는 통제변인들에 다섯 개의 가정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해당 종속변인에 회귀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3]은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에 일곱 개의 학교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해당 종속변인에 회귀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통제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변인에 여덟 개의 사회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해당 종속변인에 회귀한 결과이다. <표 3>~<표 6>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모두 표준화회귀계수값(Beta)이다.

### 2.1.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하위요소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의 [모형 1]을 보면, 네 개의 통제변인들은 민주주의 제도 변이의 1.7%를 설명한다. [모형 1]에서 보면, 통제변인들 중에서 ‘성별’( $\beta=.111$ )은 정의 방향으로, ‘지역’( $\beta=-.071$ )은 부의 방향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년’과 ‘학업성적’이 민주주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특성 변인이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통제변인에 가정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모형 2]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제도 변이의 12.8%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2]에서 보면,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부모의 태도’( $\beta=.326$ )가 유일하게 민주주의 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대체로 기각되었다.

다음, 민주주의 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에 학교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모형 3]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제도 변이의 26.8%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3]에서 보면,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총장’( $\beta=.262$ ), ‘교수’( $\beta$

=.115), ‘교육과정’(β=.149)이 민주주의 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학생회,’ ‘동아리,’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이 민주주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3>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통제변인</b>				
<b>개인변인</b>				
성별	.111**	.123***	.103**	.062*
학년	.019	.033	.017	.031
지역	-.071*	-.046	-.048	-.026
학업성적	-.051	-.057	-.062	-.030
<b>가정변인</b>				
부학력		.023	.013	.027
모학력		.012	.002	-.007
생활정도		.031	.028	.034
형제수		.030	.044	.026
부모 태도		.326***	.098**	.044
<b>학교 변인</b>				
민주시민 교육			.030	.007
학생회			-.018	-.022
동아리			.025	.024
총장			.262***	.085*
교수			.115**	.041
학생			.029	.031
교육과정			.149***	.036
<b>사회 변인</b>				
국가				.188***
시민				-.089**
공무원				.059
정치인				.078*
언론				.196***
기업				.070*
법원				.163***
검찰				.064
R <sup>2</sup>	.017 (F=3.688, p= .005)	.128 (F=14.264 p= .000)	.268 (F=19.821, p= .000)	.454 (F=29.675, p= .000)
R <sup>2</sup> Change	.017	.111	.140	.186

주) \* p<.05; \*\* p<.01.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통제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변인에 사회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모형 4]에서 보면, 통제변인, 개인특성, 학교환경 및 사회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제도 변이의 45.4%를 설명한다. [모형 4]에서 보면,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국가’( $\beta=.188$ ), ‘정치인’( $\beta=.078$ ), ‘언론’( $\beta=.196$ ), ‘법원’( $\beta=.163$ )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민’( $\beta=-.089$ )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 한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검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는 대체로 채택되었다.

## 2.2.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구성하는 두 번째 하위요소인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들이 민주주의 가치·태도 변이를 설명하는 힘은 10%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표 4>의 [모형 1]을 보면, 통제변인들은 민주주의 가치·태도 변이의 0.9%를 설명한다. [모형 1]에서 보면, 통제변인들 중에서 ‘학업성적’( $\beta=.067$ )은 정의 방향으로, ‘학년’( $\beta=-.073$ )은 부의 방향으로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별’과 ‘지역’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특성 변인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통제변인에 가정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모형 2]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가치·태도 변이의 2.4%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2]에서 보면, 대부분의 가정환경 변인들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고, ‘어머니 학력’( $\beta=-.093$ )은 오히려 자녀의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배경이 아동의 사고, 행동,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행동심리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다음,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에 학교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표 3>의 [모형 3]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가치·태도 변이의

4.5%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3]에서 보면,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교수’(β=.154)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대체로 기각되었다.

<표 4>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통제변인</b>				
<b>개인변인</b>				
성별	-.006	-.017	-.034	-.017
학년	-.073*	-.066	-.056	-.045
지역	-.004	.005	-.003	.000
학업성적	.067*	.075*	.054	.052
<b>가정변인</b>				
부학력		-.033	-.022	-.028
모학력		-.093*	-.092*	-.072
생활정도		.026	.030	.024
형제수		-.055	-.049	.040
부모 태도		.019	-.004	.002
<b>학교 변인</b>				
민주시민 교육			.037	.032
학생회			.000	.002
동아리			.009	.030
총장			-.078	-.042
교수			.154***	.125**
학생			-.028	-.022
교육과정			.014	.011
<b>사회 변인</b>				
국가				.060
시민				.045
공무원				.075
정치인				-.238***
언론				.050
기업				-.097**
법원				.118*
검찰				-.070
R <sup>2</sup>	.009 (F=2.029, p=.088)	.024 (F=2.414, p=.010)	.045 (F=2.548, p=.001)	.099 (F=3.929, p=.000)
R <sup>2</sup> Change	.009	.015	.021	.054

주) \* p<.05; \*\* p<.01.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가정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에 사회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모형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4]에서 보면, 통제변인, 가정환경 변인, 학교환경 및 사회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가치·태도 변이의 9.9%를 설명한다.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 ‘법원’( $\beta=.118$ )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대해 정의 방향으로, ‘정치인’( $\beta=-.238$ )과 ‘기업’( $\beta=-.097$ )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국가,’ ‘시민,’ ‘공무원,’ ‘언론,’ ‘검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 2.3.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구성하는 세 번째 하위요소인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보면, 민주시민 의식 관련 변인들은 민주주의 참여·실천 변이의 11.2%를 설명한다. <표 5>의 [모형 1]을 보면, 성별, 학년, 지역, 학업성적을 포함한 네 개의 통제변인들은 민주주의 참여·실천 변이의 2.8%를 설명한다.

[모형 1]에서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한 통제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년’( $\beta=.084$ )과 ‘학업성적’( $\beta=.139$ )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별’과 ‘지역’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특성 변인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통제변인에 가정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모형 2]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참여·실천 변이의 4.2%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2]에서 보면,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부모의 태도’( $\beta=.096$ )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가정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대체로 기각되었다.

다음,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에 학교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모형 3]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참여·실천 변이의 10.2%를 추

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3]에서 보면,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민주시민 교육’(β=.127), ‘학생회’(β=.079), ‘동아리’(β=.138), ‘학생’(β=.097) 등의 변인들이 대학생의 민주주의 참여·실천 변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총장,’ ‘교수,’ ‘교육과정’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변인에 사회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모형 4]에서 보면, 통제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변인들은 민주주의 참여·실천 변인의 11.2%를 설명한다. [모형 4]에서 보면, 여덟 개의 사회환경 변인들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인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4]는 전적으로 기각되었다.

<표 5>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통제변인</b>				
<b>개인변인</b>				
성별	.005	.008	-.021	-.017
학년	.084*	.088**	.083*	.078*
지역	-.023	-.002	-.010	-.011
학업성적	.139***	.136***	.115***	.114**
<b>가정 변인</b>				
부학력		-.035	-.004	-.003
모학력		-.017	-.016	-.018
생활정도		.030	.019	.021
형제수		.035	.044	.038
부모 태도		.096**	.013	.027
<b>학교 변인</b>				
민주시민 교육			.127***	.126***
학생회			.079*	.078*
동아리			.138***	.139***
총장			-.017	-.003
교수			.072	.080*
학생			.097*	.077
교육과정			.005	.009
<b>사회 변인</b>				
국가				-.045
시민				.063
공무원				-.014

정치인				.073
언론				-.046
기업				-.018
법원				.011
검찰				-.060
R <sup>2</sup>	.028 (F=6.432, p= .000)	.042 (F=4.278, p= .000)	.102 (F=6.155, p= .000)	.112 (F=4.487, p= .000)
R <sup>2</sup> Change	.028	.014	.060	.010

주) \* p<.05; \*\* p<.01.

## 2.4.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등 세 가지 척도지수의 합으로 구성된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다. <표 6>에서 보면, 관련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 변이의 20.2%를 설명한다. 우선, 통제변인들이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의 [모형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1]에서 보면, 통제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 변이의 1.2%를 설명한다.

[모형 1]에서 보면,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학업성적’( $\beta=.087$ )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특성 변인이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은 대체로 기각되었다.

이어, 통제변인에 가정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모형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2]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 변이의 7.0%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2]에서 보면,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부모의 태도’( $\beta=.228$ )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가정환경 변인이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는 대체로 기각되었다.

다음,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에 학교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의 [모형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3]에서 보면, 통제변인과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 변이의 16.2%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모형 3]에서 보면,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동아리’와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시민 교육( $\beta=.108$ ), 동아리

( $\beta=.101$ ), 총장( $\beta=.088$ ), 교수( $\beta=.162$ ), 교육과정( $\beta=.082$ ) 등 5개 변인들은 모두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환경 변인이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변인에 사회환경 변인들을 추가하여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모형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4]에서 보면, 통제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및 사회환경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 변이의 20.2%를 설명한다. [모형 4]에서 보면,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국가’( $\beta=.089$ ), ‘언론’( $\beta=.089$ ), ‘법원’( $\beta=.135$ )이 민주시민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가,’ ‘시민,’ ‘공무원,’ ‘정치인,’ ‘기업,’ ‘검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인이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6>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통제변인</b>				
<b>개인변인</b>				
성별	.056	.059	.025	.013
학년	.032	.044	.037	.046
지역	-.051	-.022	-.031	-.019
학업성적	.087**	.085*	.062	.076*
<b>가정변인</b>				
부학력		-.023	-.005	.001
모학력		-.041	-.046	-.043
생활정도		.044	.038	.039
형제수		.014	.030	.021
부모 태도		.228***	.055	.039
<b>학교 변인</b>				
민주시민 교육			.108**	.094**
학생회			.040	.038
동아리			.101***	.110***
총장			.088*	.023
교수			.162***	.120***
학생			.064	.054
교육과정			.082*	.028
<b>사회 변인</b>				
국가				.089*
시민				.013
공무원				.050
정치인				-.011

언론				.089*
기업				-.015
법원				.135**
검찰				-.033
R <sup>2</sup>	.012 (F=2.706, p= .029)	.070 (F=7.281, p= .000)	.162 (F=10.472, p= .000)	.202 (F=9.031, p= .000)
R <sup>2</sup> Change	.012	.058	.092	.040

주) \* p<.05; \*\* p<.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경애 외(2009)가 전국 5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1개의 초·중·고·대학교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에서 대학생 1,20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단계적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하위요인에는 모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특성 변인들 중에서는 학업성적( $\beta=.067$ )이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민주시민 의식 수준, 특히 민주주의 가치·태도 및 참여·실천 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업성적에 치중하다 보면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한편, 대학교육의 누적 정도를 나타내는 학년( $\beta=-.073$ )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학업성적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민주주의 가치·태도는 교육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교육성과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정환경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제도, 참여·실천에 대해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치·태도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 학력’( $\beta=-.093$ )이 자녀의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지적 자본이 자녀의

가치·태도 형성 과정에서 유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의 태도’가 민주시민 의식( $\beta=.228$ )과 민주주의 제도( $\beta=.326$ )와 참여·실천( $\beta=.096$ )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민주적 태도가 자녀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적 또는 수용적 태도가 자녀의 정치적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광웅·방은령, 2001; 임영철, 1986; 정원식: 1974; Symonds, 1969: 46-49)를 뒷받침한다. 이는 자녀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이나 생활정도 등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나 분위기 등의 심리적 환경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환경 변인들은 대부분 대학생의 민주주의 가치·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민주시민 의식, 민주주의 제도, 참여·실천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beta=.162$ )과 민주주의 제도( $\beta=.115$ ), 가치·태도( $\beta=.154$ )에 대한 교수의 긍정적 역할이 두드러진다. 반면,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와 참여·실천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대학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아리(민주시민 의식:  $\beta=.101$ , 참여·실천:  $\beta=.138$ )와 민주시민 교육(민주시민 의식:  $\beta=.108$ , 참여·실천:  $\beta=.127$ )은 이들 두 하위변인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교수가 중심이 되어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모든 교육활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대학 내 동아리 활동과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환경 변인들은 민주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제도 및 참여·실천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해서는 여덟 개 변인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제도의 민주적 실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 법원은 민주시민 의식( $\beta=.135$ ), 민주주의 제도( $\beta=.163$ ) 및 가치·태도( $\beta=.118$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치인( $\beta=-.238$ )과 기업( $\beta=-.097$ )은 민주주의 가치·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대학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정치인과 기업에 대한 불신풍조를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업과 정치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배한동(2001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연구 방법상의 몇 가지 한계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 네 가지 변인들을 민주시민 의식의 관련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민주시민 의식에 대해서는 20.2%,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는 45.5%이지만 민주주의 가치·태도와 민주주의 참여·실천에 대해서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변인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변인들이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양성’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학과 대학의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각 대학은 2012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평가지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타 대학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성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특성화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고객 만족도->재구매 의사의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교육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호, 2002). 둘째, 대학 경영혁신 전략은 이제 벤치마킹, 구조의 개편 또는 조정, 다운사이징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김용호, 송경수, 2005) 민주시민 교육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교육 시장에서 특화된 상품은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대학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특화상품을 대학홍보에서 마케팅 PR 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최석현, 김우희, 2007), 상품의 질에 대한 신뢰는 향후 신입생 유치나 졸업생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관리 및 개발에 책임을 지고, 국가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건립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지역의 산·학·연과 협력하여 대학생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정부는 대학인증 평가 지표에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대학의 기여도’ 항목을 포함시키고, 취업 시 민주시민 의식 지수가 높은 대학생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적 참여와 실천을 토대로 정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1. 강운선 · 이명강(2009),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 제48권, 제4호, pp.175-185.
2. 강효민(2003), “교생의 교내 동아리 여가활동과 사회적 적응 및 학교공동체 의식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2호, pp.223-236.
3. 공보처(1997), “2002 시민의식 국제비교 조사,” 공보처.
4.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
5. 김광웅 · 방은령(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집문당.
6. 김영수(2008), “대학생의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가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2권, 제2호, pp.1205-1216.
7. 김영하(2005), “중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구조와 그 함양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8집, pp.135-170.
8. 김용호(2002), “대학행정 서비스 품질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정보연구, 제8집, pp. 147-166.
9. 김용호 · 송경수(2005), “대학의 경영혁신 방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영정보연구, 제17집, pp. 135-160.
10. 김정화 · 박선혜 · 조상미(2010), “한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 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4호, pp.183-210.
11. 김중서 · 이영덕 · 정원식(2009), “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2. 김태준(2004), “한국사회 시민의식 실태와 교육적 함의: 비판의식 및 다양성 존중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KD 2004-31-03-14, 한국교육개발원.
13. 김태준 · 김안나 · 김남희 · 이병준 · 한준(2003),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성 측정연구,” 한국개발원 연구보고 RR 2003-15-1, 한국교육개발원.
14. 문용린(2002),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15. 박동서 · 김광웅(1989), “한국인의 민주시민 의식: 대중과 엘리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16. 배한동(2001a), “한국 대학생의 민주주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9권, 제2호, pp.227-260.
17. 배한동(2001b),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서울: 집문당.

18. 배한동(2006), “민주시민교육론,”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 손경애 · 이혁규 · 옥일남 · 박윤경(2010),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 서울: 동문사.
20. 손경애 · 이혁규 · 옥일남 · 박윤경(2009),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실태 연구,” 미래한국재단 연구보고서 09-01, 미래한국재단.
21. 심익섭 · 김민정 · 김성호 · 송태수 · 신기현 · 신두철 · 심상용 · 윤기석 · 이승중 · 이준호 · 정창화 · 추병완 · 허영식(2004), “한국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엠-에드.
22. 임영철(1986), “정치사회화,” 서울: 지구문화사.
23. 정원식(1974),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사.
24. 정원식 · 이상노 · 이성진(1991),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25. 조영하 · 김태준(2010), “IEA 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비교 연구: ARM 예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189-217.
26. 지은림(2007), “대학생용 지구시민의식 척도 개발의 타당화 및 관련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0권, 제2호, pp.151-172.
27. 차경수(1985),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학문사.
28. 최석현 · 김우희(2007), “대학홍보에서 마케팅 PR 활용에 관한 연구-마케팅 PR 전략의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경영정보연구, 21집, pp. 29-47.
29. 한국교육개발원(1993), “민주사회 민주시민: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생용 민주시민 교육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30. 한국대학신문(2005), “한·중·일 3국 대학생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대학신문, 2005년 2월 15일, <http://www.unn.net/>
31. 황용준 · 김갑선(2005), “청소년기의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6호, pp.871-880.
32. Eric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33. Frattczak-Rudnicka, B. and J. Torney-Purta(2002), *Competencies for Civic and Political Life in Democracy*, In Rychen, D. S., L. H. Salganik, and M. E. McLaughlin (Eds.), *Contributions to the Second DeSeCo Symposium*, Geneva, Switzerland, February 11-13, 2002.
34. Havighurst, R. and B. L. Neagarten(1968), *Society and Education* (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Inc.
35. Hoy, W. K. and C. G. Miskel(2008),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 Research, and Practice (8th ed.), New York: McGraw Hill.
36. IEA(2010), ICCS International Report: Scope Statements for Chapter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37. Langton, K. P.(1969), Political Socializ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38. Piaget, J.(1928),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39. Schuller, T.(2002), "The Complimentary Roles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Vol. 2, No. 1, pp.18-24.
  40. Symonds, F. M.(196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Appleton Century.
  41. Torney-Purta, J., R. Lehmann, H. Oswald, and W. Schulz(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 Abstract

### The Relativ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the Civic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Son, Kyung-A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v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the university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The study sorted out the data for 1,200 university students from a larger data set collected by Son et al.(2009), and analyzed the data b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study showed the major results in four aspects. Firs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home environment variables had mostly no influence on the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Second, on the sub categories of the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lmost no influence was found in case of the home environment variables on democratic constitution and participation-practice, and in case of the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on value and attitude. Third, among the home and school variables, parents' attitude( $\beta=.228$ ) and professors( $\beta=.162$ )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The results suggest that parents and professors should be the two principal axes in the cultivating process of the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Third,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practice no positive influences were found in any of the social environment variables. Among the social environment variables, politicians( $\beta=-.238$ ) and corporations( $\beta=-.097$ ) had rather negative influences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practice. These results raised the question on how school education and social-political systems are operated in the democratic manners. Fourth, the study recommends that local government would establish the civic education centers, develop various civic education programs, and provide each school with the programs. The study also recommends that each university would democratize in all the school affairs, and actively implement the civic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s a specialized project.

Key words: democratic citizen, civic consciousness, university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fluence of civic  
consciousness

---

\* Department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Professor, kachung@seowon.ac.kr